

# BIO ECONOMY REPORT

May 2022. Issue 38

## 국내외 바이오제약 기업의 ESG 평가 및 동향

# 국내외 바이오제약 기업의 ESG 평가 및 동향

**박봉현**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지운**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연구원  
**강진영** 삼일회계법인, 컨설턴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가속화되고, 활동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 등 환경오염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을 시작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불리는 지속가능경영 실행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시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 금융위원회에서도 국내 상장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본래 투자자 관점에서 비재무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 요소이다. 즉,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 및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이자, 지속가능경영을 대비하는 사회의 핵심지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글로벌 상위 바이오·제약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경영 전략 수립을 통해 ESG를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생산에 따른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탄소 저감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의약품 접근성 이슈 및 윤리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업 경영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 중이다.

한편, ESG가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가 되었음에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 평가기관에 따라 ESG 평가 항목 및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업들은 다수의 평가기관에서 결과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ESG 활동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국내외 ESG 평가 현황과 선진 기업들의 ESG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의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고자 한다.

## 1. ESG란 무엇인가<sup>1,2</sup>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이다. ESG의 정의는 기관별 설립 목적 및 사업의 특성, 이해관계자의 차이에 따라서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투자 의사결정·장기적인 수익·재무가치·경영 리스크·사회책임 등이 주요 키워드에 해당하며, 궁극적 개념은 ‘투자의사결정 및 장기적 재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비재무적 요인’이다. 즉, 과거에는 기업 평가에서 ‘재무적’ 정량 지표가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기후변화 등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비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요인 만큼이나 중요함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ESG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ESG 구성요소



### 가. Environmental(환경)

-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및 기회 발굴
- 사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이니셔티브 참여

## 나. Social(사회)

- 고객의 만족을 위한 활동
- 인권 관련 위험 해결
- 삶의 질을 높이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금융 솔루션의 개발 및 기타 긍정적인 사회 영향
-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 기회 확대
-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 대한 증진
- 소비자 재정(financial) 건전성 강화




## 다. Governance(거버넌스)

- 선진적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 문화 조성
- 효과적인 이사회 리더십 및 관리 프로세스 유지
- 정치 참여 및 공공 정책 참여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 2. 국외 ESG 평가 기준 및 모델<sup>3</sup>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복합적 리스크에 잘 대응하고 지속가능경영 능력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되면서, ESG의 다양한 평가 지표 및 항목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기관 들이 기업의 ESG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각 평가 기관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 즉, 같은 평가 대상 기업이라도 평가 기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분명한 ESG의 기준과 혼란으로 인해, 현재는 글로벌 ESG 지수 개발에 선도적인 평가사인 MSCI, S&P Global, Sustainalytics 등의 자료를 인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했고 공시 기준 최종안에 대해 2022년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ESG를 선도하는 해외 평가 기관들을 중심으로 평가 지표, 방법 및 항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1] 해외 ESG 선진 평가기관의 평가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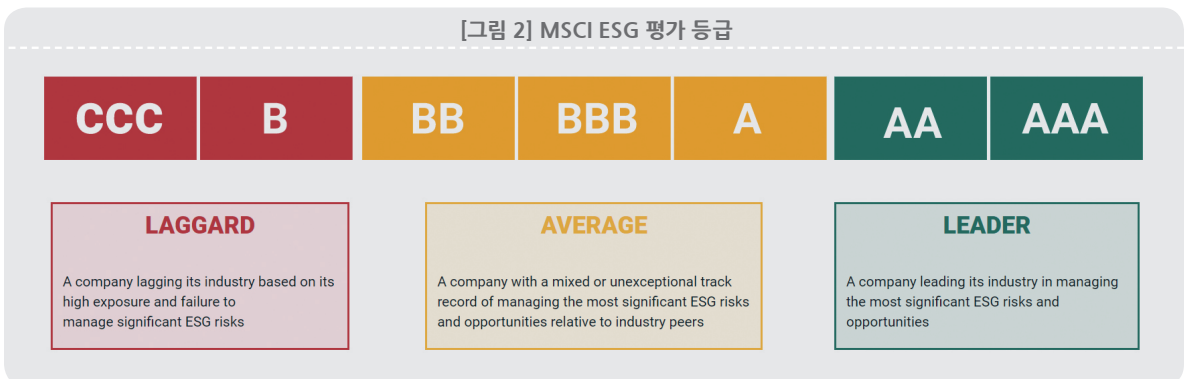
평가기관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항목(점수체계)
	MSCI ESG 평가 (MSCI ESG Rat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된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li> <li>· 피 평가 기업은 정보 검증과정에 참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가지 테마, 35가지 주요이슈 (AAA-CCC)</li> </ul>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DJ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계 2,500개 기업(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 사회, 환경적 성과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li> <li>· 피 평가자가 질문에 답변한 내용 기반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120 문항의 설문 조사 시행(0~100)</li> <li>·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해 가중치를 부여</li> </ul>
	ESG RISK 평가 (기업 재무가치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된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li> <li>· 피 평가자 요청 시 보고서 발간 전 정보 업데이트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가지 지표 고려 (0~50)</li> <li>· 기업 거버넌스, 중대 ESG 이슈 평가</li> </ul>

출처: KONETIC, 국내외 IP 분석보고서

### 가.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 평가<sup>4</sup>

MSCI ESG 등급 모델은 장기적인 산업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MSCI는 공개된 기업정보, 정부 데이터베이스, 매크로 데이터 등을 활용한 '규칙 기반(rules-based) 방법론'을 통해 산업별 선두주자와 후발 주자 사이의 갭을 식별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별로 ESG 리스크 노출 정도에 따라 동종 업체와 비교해 해당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였는지 'AAA부터 CCC까지' 척도로 평가를 한다. '후발(CCC-B)' 등급은 ESG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업계에서 뒤처지고 있는 기업이며, '평균(BB-BBB-A)' 등급은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ESG 리스크 요소를 관리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마지막으로, 선두(AA-AAA) 등급의 경우, ESG 리스크와 기회의 관리가 모두 가능한 산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MSCI ESG 평가 등급



또한, 해당 모델은 각 산업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며, 총 10가지의 주제 안에서 35가지의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산업별 중대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파악한다. MSCI ESG 등급에서의 리스크 노출(Risk exposure)과 이에 따른 관리(Risk management)가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각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리스크 노출(Risk exposure)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탄소 배출(Carbon emissions), 물 부족(Water stress)와 같은 해당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리스크보다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노출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입증된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들의 ESG 평가 등급 산정을 위해서, 각 기업은 산업조정점수(Industry-Adjusted Score, IAS)를 받는다. 이는 환경(E) 및 사회(S) 핵심 이슈 점수의 가중평균과 거버넌스(G) 점수로부터 설정한 점수범위를 기반으로 정규화 한 값으로, 0-10점 척도이며 이를 통해 ESG 평가 등급을 결정한다.

[그림 3] MSCI ESG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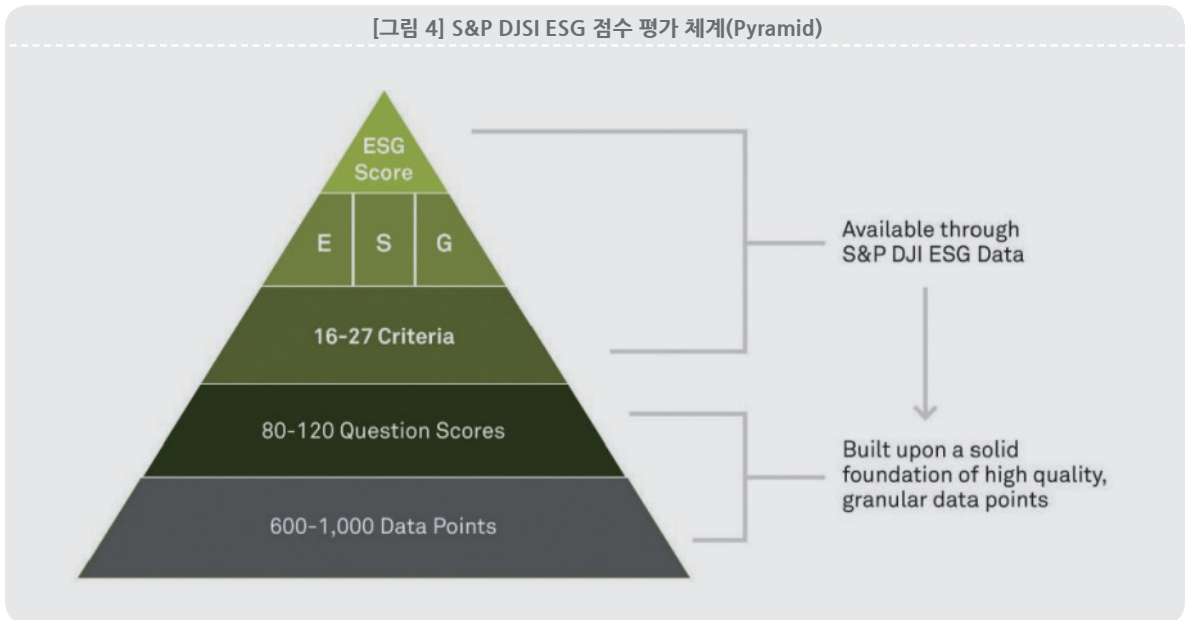
3 Pillars	10 Themes	35 ESG Key Issues	
Environment	Climate Change	Carbon Emissions Product Carbon Footprint	Financing Environmental Impact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Natural Capital	Water Stress Biodiversity & Land Use	Raw Material Sourcing
	Pollution & Waste	Toxic Emissions & Waste Packaging Material & Waste	Electronic Waste
	Environmental Opportunities	Opportunities in Clean Tech Opportunities in Green Building	Opportunities in Renewable Energy
Social	Human Capital	Labor Management Health & Safety	Human Capital Development Supply Chain Labor Standards
	Product Liability	Product Safety & Quality Chemical Safety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Privacy & Data Security Responsible Investment Health & Demographic Risk
	Stakeholder Opposition	Controversial Sourcing Community Relations	
	Social Opportunities	Access to Communications Access to Finance	Access to Health Care Opportunities in Nutrition & Health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Ownership & Control Board	Pay Accounting
	Corporate Behavior	Business Ethics Tax Transparency	

### 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sup>5</sup>

글로벌 금융정보사 다우존스(S&P DOW Jones)와 스위스의 사회책임 평가 및 국제 투자사인 로베코샘(RobecoSAM)이 공동개발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는 MSCI와는 다른 방법으로 ESG 성과를 평가한다. 전세계 2,500개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적 가치 이외에 사회, 환경적 성과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이다.

DJSI는 기업이 작성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ESG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80~120개의 산업 간 또는 산업별 질문을 혼합하여 평가하는 설문지를 통해 61개의 산업 내의 기업을 비교한다. 기업은 성과를 기반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관련된 약 20가지의 지속 가능성 기준에 대해 0에서 100까지의 점수와 백분위를 받게 된다. 이 때, ESG의 리스크가 큰 기업들을 인공지능 시스템인 '렙리스크(Rep Risk)'를 활용해 평가 설문에서 배제하며, 특정 산업에 대해 산업별 가중치를 부여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림 4] S&P DJSI ESG 점수 평가 체계(Pyramid)



## 다. Sustainalytics ESG 리스크 평가(Three-Building Blocks 시스템)

Sustainalytics는 ESG 리스크 평가 및 리서치 등 높은 전문성을 보여온 평가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ESG 리스크 평가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ESG 리스크가 기업의 재무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피 평가기업의 요청시 보고서 발간 전 검토 및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는 0~50 사이의 점수로 평가된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ESG 리스크가 크다.

Sustainalytics ESG 리스크 평가 체계는 크게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산업별 중대한 ESG 이슈(Material ESG Issues), 기업별 기타 ESG 이슈(Idiosyncratic ESG Issues)의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있다. 각 산업별 최소 70개 이상의 항목을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1)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ESG 리스크 평가 등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산업별 중대한 이슈(Material ESG Issues, MEIs)라고 할 수 있지만, ESG 리스크 평가 모델은 단계적 구조로서,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되어진다. 즉,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ESG 전략을 포함한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거나, 이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에 어렵고 선진적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만이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기업지배구조는 총 6가지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되는데, 이사회 독립성, 주주 권리 및 보수 등이 포함된다.

### 2) 산업별 중대 ESG 이슈(Material ESG Issues, MEIs)

ESG 리스크 평가 등급의 핵심은 두 번째 등급인 산업별 중대 ESG 이슈(MEIs)이다. MEIs는 일반적으로 직원 채용 및 개발, 다양성 및 노사관계를 포괄하는 HR 이니셔티브(Initiative)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MEIs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적 자본 위험(General Human Capital Risks)과는 다르며, MEIs의 관리 지표는 잠재적인 경영 실패에 대한 잠재적인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Sustainalytics는 총 29개의 ESG 이슈를 정의했으며, 이를 ESG 리스크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산정된 이슈는 하위 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ESG 이슈 SET의 설계를 통해 도출된 근본적인 몇 가지의 기본 구조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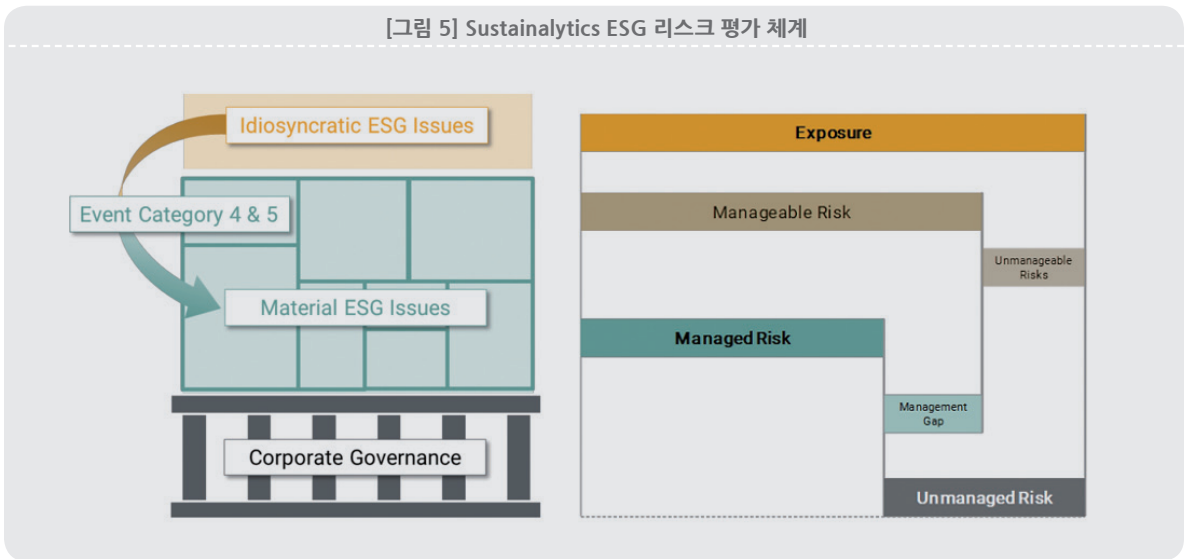
### 3) 기타 특이 이슈(Idiosyncratic Issues)

위에서 논의한 MEIs에 해당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슈의 경우에는, 특이



한 이슈 Idiosyncratic Issues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며, 여기에는 뇌물 및 부정부패 등의 이슈가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분식회계(Accounting scandals)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예측 불가능하거나 논리에서 벗어난 이슈들이 존재하므로, 특이 이슈에 해당된다. 단, 전체 하위 산업이 아닌 해당 특정 회사에서의 일부 이슈에 대해서만 작용한다.

[그림 5] Sustainalytics ESG 리스크 평가 체계



### 3. 글로벌 주요 바이오·제약 기업 ESG 사례

#### E (Environmental)

##### 가. Abbvie<sup>6</sup>

애브비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전략은 에너지 소비와 물을 줄이고 혁신을 유도하고 환경 경영 활동에 인력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이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약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가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애브비의 모든 제조현장은 환경관리 시스템에 대한 ISO 14001 인증(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조달정책을 통해 경쟁제품과 비교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우선시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 인프라 및 프로세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달성되고 있다. '20년 북미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구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양을 늘렸고 '15년 기준대비 신재생에너지 소싱을 50% 증가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

지속가능성을 전략에 통합시킴으로써 비즈니스 활동에 포함시키고, 환경목표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년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무실 및 실험실 개조를 비롯하여, 새로운 건물 및 글로벌 임대시설에 환경경영을 위한 100가지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도록 글로벌 시설 설계 지침을 새로 개정하였다.




[표 2] 애브비의 환경분야 목표('15년 실적 기준 목표)

구분	2020 달성	2025 목표	2035 목표
탄소 배출량 감소 (절대량)	24%	25%	50%
신재생 에너지 구입률 증가	28%	50%	100%
물 사용량 저감 (절대량)	-3%	20%	50%
일반/유해 폐기물 저감 (절대량)	13%	20%	-
일반/유해 폐기물 재활용률 유지 및 촉진	38%	50%	-
폐기물 매립 제로	89%	-	100%

#### 나. Novartis<sup>7,8</sup>

노바티스는 자체적 운영 뿐 아니라 공급업체까지 참여시키는 환경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특히 기후영향 저감, 폐기물 및 물 사용량 저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30년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4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며 '21년 10월에 발표된 새로운 과학기반 목표(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넷제로 표준에 따라 전략과 목표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21년 노바티스는 '16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4% 감소, 물소비량 40% 감소, 폐기물 처리 56% 감소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림 6] 2025년과 2030년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

	최종목표	2025년 목표	2030년 목표
<b>Climate</b> 	탄소중립	탄소중립 자체운영 scope1, 2	총 탄소중립 범위 scope1, 2, 3
		모든 공급업체 계약 내 환경기준 포함	
<b>Waste</b> 	순환경제 & 플라스틱 중립	포장에서 PVC 제거	플라스틱 중립
		폐기물 처리 절반 감소	모든 신제품이 지속 가능한 설계 원칙을 충족
<b>Water</b> 	물 지속가능성	운영에서 물 소비 절반 감소	모든 영역에서 물 중립
		제조배수로 인한 수질영향 없음	운영하는 곳 모두 수질개선

#### 다. Pfizer<sup>9</sup>

화이자는 지구 온난화로 초래될 공중보건 악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환경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 유수의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인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에 동참하여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 중립 달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제품의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46% 감축을 목표로 세워 '21년에는 '19년 대비 7% 감축을 달성하였고 취수량과 폐기물 처리량도 각각 '20년 대비 각각 15%, 18% 감소하였다.

[표 3] 2030 환경분야 목표 및 진행상황

목표	진행상황
직/간접(Scope1,2)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년 기준대비 46% 감소	'21년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하여 제품생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0.8%, '19년 대비 7% 감소한 수치를 기록
신재생에너지 비율 80%('25), 100% 확대('30)	'21년 6.5%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조달하고 '23년부터 310MWh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목표달성을 지원

목표	진행상황
항공운송 및 유통에서의 배출량 10% 감소 및 사업출장으로 인한 배출 25% 감소('25)	콜드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비행기로 운송된 코로나 백신의 운송 및 유통은 상류 물류배출량 증가에 기여. 또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특정 화이자제품의 긴급한 요청은 해양에서 항공운송으로 이동을 유발하여 물류 배출량을 더욱 증가시킴. 사업출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코로나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19년 대비 92% 감소함. 출장감소를 위해 디지털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
공급망 전반에 걸친 변화 가속화 및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64%가 과학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유도	팬데믹은 코로나백신, 치료제를 포함한 화이자 제품 및 서비스의 큰 소비를 유발함. 현재 공급업체의 10%가 SBTi에 의해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음. '22년 부터 SBTi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보고 범위를 확대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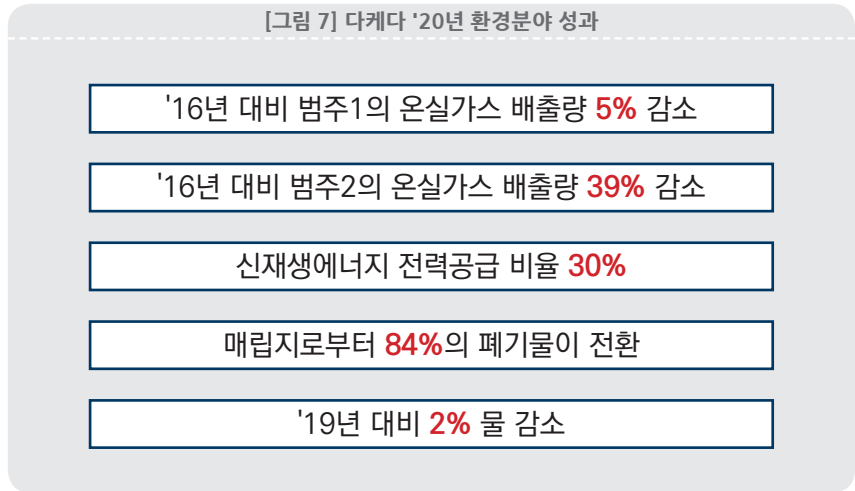
**라. Takeda<sup>10</sup>**

다케다사는 '20년 1월에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40년까지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배출량을 50% 줄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25년까지 물 소비량을 5% 줄이고 '30년까지 모든 주요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 제로상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과정에 위험한 물질의 사용과 생성을 최소화하며 포장에 재활용 자재 사용, 재활용률을 최대화하여 모든 가치사슬에 걸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CAPS(Climat Action Program at Sites)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추적 및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부 소셜미디어 및 라이브러리를 통해 지식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로 빗물과 폐수를 대규모로 처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벨기에 신생기업 Ekopak과 협력을 통해 전체 소비량의 90%에 달하는 60만 리터의 물을 재활용하여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엄격한 품질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림 7] 다케다 '20년 환경분야 성과



#### 마. GlaxoSmithKline<sup>11</sup>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단계적으로 '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량 제로, '25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목표로 하며 최종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기후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1년에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켜 Scope 1,2의 탄소 배출량을 '20년 대비 15% 감소시켰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67%까지 기록함과 동시에 15개국에 있는 현지 회사들이 현재 100% 재생가능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EV100의 회원으로 '30년까지 판매차량을 저탄소 차량으로 전환하고 100개 사이트에 충전 인프라 설치를 약속하였다. '21년 11월 유엔 세계기후변화회의에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와 자연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지지하고 밸류체인 각 영역별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직원들과의 물 절약 캠페인과 물 사용 저감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와 관리 표준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1년 전년 대비 전체 물 사용량을 16% 감소시켰으며 특히 물 부족이 심한 지역에서는 21% 감소시켰다.

'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로를 포함한 폐기물 제로, 제품 및 포장에 대한 환경영향 25% 감소, 공급망으로 인한 폐기물 1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1년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7% 줄이고 재사용 또는 재활용과 같은 순환경로를 통해 43%를 회수하였다.

## S (Social)

### 가. Abbvie<sup>6</sup>

애브비는 형평성, 평등성, 다양성 및 포용성(EED&I) 프레임워크와 전략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중시하고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하며 모든 직원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하고 있다. '19년에 시작된 EED&I 전략은 직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인재 유치 및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관련 커뮤니티를 지원하는데 집중한다.

다양성 관련한 교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y(HBCUs)와의 집중적인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다양성에 기반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그룹 조성을 지원하여 포용적 문화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노동, 강제노동, 부당임금 및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직원의 업무 환경에 맞게 작업장 안전 교육을 제공하며 외부인증도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모든 제조현장은 OHSAS18001 또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관련된 국제 안전 표준에 따라 인증받았다.

애브비는 윤리적 관행과 글로벌 프라이버시 관련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인식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고 애브비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나. Novartis<sup>7,8</sup>

노바티스는 자사의 의약품이 가능한 한 많은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가격 책정 및 모델 채택, 사회의 요구에 기반한 연구 및 개발 재조정,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접근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할 때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약물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며 소외계층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R&D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요구를 적절하게 신약 개발전략에 통합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의약품의 임상사용을 새로운 적응증 및 인구로 확장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 지역의 경제성 장벽 및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 노바티스는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며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서 혁신적인 제품의 접근성 측면의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혁신적인 치료법의 현지 브랜드를 도입하였다. 의료종사자의 교육 및 지원에 투자하여 지식을 확장하고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연구 및 임상시험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20년 Global Health Scholars라는 공동 프레임워크 아래 핵심 과학 교환 프로그램(NGS 포함)을 통합하였으며 규제 조정 및 의료시스템 비효율을 없애는 의료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 다. Pfizer<sup>9</sup>

화이자의 사회 측면의 지속가능성 우선순위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며 지난 10년 동안 생산성을 면밀히 살피고 여러 차원에 걸친 변화를 구현해 왔다. 이런 접근방식은 신약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데 기여했으며, 실제로 신규화합물(NME)에 대한 임상2상 성공률은 '15년부터 '21년까지 4배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21년 말까지 화이자는 임상시험에서 허가까지 21%의 성공률을 달성하였다. 의약품 개발 사이클의 단축과 임상 성공률의 제고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여 EUA(Emergency Use Authorization)를 달성하였고 코로나 대유행을 해결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였다. 과학적 혁신을 주도하는 것 이외에도 접근성, 저렴한 가격 및 배송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화이자는 양성평등 측면에서 특히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년 말 부사장급 이상의 여성의 비율이 38.1%라고 보고했으며 '21년 말에는 3.4% 상승한 41.5%를 기록하였고 '25년까지 47%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이자는 영국 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차이인 중위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매년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21년에는 중위 성별 임금 격차가 7.5%로 2.7%포인트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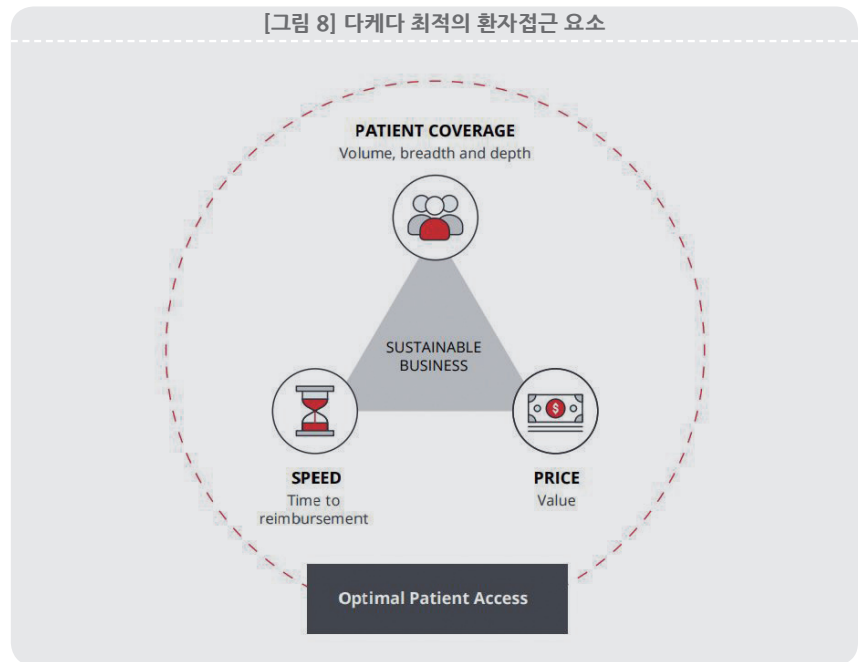
#### 라. Takeda<sup>10</sup>

연구개발에서 다케다는 충족되지 않은 의료 요구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약 50%의 파이프라인이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단기적으로 15개 출시가능성이 있는 11개의 고유한 새로운 신규화합물이 포함된다.

다케다의 상업적 전략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환자지원 프

로그램과 함께 “차등요금”에 대한 약속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가격원칙을 채택하였다. 의약품 접근 프로그램은 전 세계 54개 국가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7만여 명의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4만 6천여명의 환자의 선별을 가능하게 했으며 800여 명의 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였다.

[그림 8] 다케다 최적의 환자접근 요소



### 마. GlaxoSmithKline<sup>11</sup>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여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서 긴급한 공공보건에 이르기까지 건강상의 필요를 해결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21년 8월에 제품 접근과 기능구축에 중점을 둔 팀과 제약/백신 연구개발 분야를 통합하여 HIV, 말라리아, 그리고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에 대한 R&D를 통해 전 세계적인 건강분야를 개선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의 8억 명에게 서비스와 제품이 접근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18년 제품에 대한 목표 달성 이후 3억 2천 3백만 명 이상이 약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차등화된 가격 정책으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동맹인 Gavi와 같은 단체에 최저 가격의 백신을 제공하고 '10년부터 9억 4천 5백만회 이상의 도스 분량을 공급하여 수백만명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다양성 및 포용성 측면에서 모든 직원들이 매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며 '25년 말 까지 여성 및 인종적으로 다양한 고위직 대표자 비율을 4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이사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1년에는 부사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40%를 차지하였다. '21년 기준 미국에서 부사장 이상의 역할에 27.1% 영국에서 12.9%의 인종적으로 다양한 리더가 있으며 미국 내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인종이 각각 7.9%, 5.8% 증가하였다.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회복과 에너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웰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또한 직원들을 위한 건강 및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작업장에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식별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21년, 직원의 사망사고는 없었고, 보고되는 부상과 질병률은 10만 시간당 0.16에 머물렀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GMP, GLP, GCP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1년에는 제조 현장 및 현지 운영사에서 171건의 외부 규제 점검(2020년 142건)을 실시했으며 사소한 검사 결과라도 모든 검사결과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공급업체에 대한 1,833건의 품질 감사와 GSK가 운영하거나 GSK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312건의 감사를 실시하여 공급업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상황을 추적하며 중요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제품을 일시 중단하거나 계약을 중단하였다.

GSK는 또한 의약품의 임상 개발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화로운 접근과 절차를 촉진하고, 주요 규제를 시행하고, 위조품에 대한 법률 및 시행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SK는 위조 GSK 제품 제조사에 대한 기소를 지지하여 많은 구류 형량과 3백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G(Governance)

### 가. Abbvie<sup>6</sup>

리스크 관리는 이사회 내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경영진과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한다. 리스크 담당 리더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리스크 관련

보고를 진행하며, 각 구성원은 리스크를 식별하고 완화하는 기능과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위원회에 제공하며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 리스크 담당 팀은 각 영역에 대한 리스크 전략과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다.

**나. Novartis<sup>7,8</sup>**

노바티스는 윤리,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활동이 모든 일의 핵심이 되도록 함으로써 조직이 변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윤리,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동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인식을 촉구하며 조직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년 9월 노바티스는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윤리적 기준에 대한 약속인 윤리강령을 도입하여 모든 직원이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윤리강령에는 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윤리적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원칙과 기대치가 포함되어 있다.

'21년 노바티스는 경영진 수준의 Novartis Trust & Reputation Committee에서 승인한 인권 약속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노바티스에서 식별한 12가지 인권 중점 영역에 대해 비즈니스 전반에 인권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리스크 포트폴리오 및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감사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전략 및 운영 수준에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년 통합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기존 조직을 통합하여 각 영역 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Risk & Resilience 팀은 혁신적이고 통합된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다.

#### 다. Pfizer<sup>9</sup>

화이자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사전 위험관리 및 책임을 추진하는 핵심기능 전반에 걸쳐 품질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감독하고 있다. 사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공개하며 모든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높은 윤리적, 과학적, 의료적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화이자는 환자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안전/품질 정책,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의약품을 전세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화이자 품질관리 시스템(QMS)은 모든 해당 품질 및 안전 규정, 법규 및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건강과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림 10] 화이자의 품질관리 시스템



이사회는 ESG 전략의 거버넌스와 구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성별, 연령, 인종, 민족, 배경, 경력 등 다양성에 기반한 대표자들과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와 전체 이사회는 다양한 자격이 있는 이사 후보들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5년 동안 6명의 새로운 사외 이사들의 선출로 임기가 평균 6년 증가하였다.

#### 라. Takeda<sup>10</sup>

다케다는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임명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명위원회는 이사 후보자와 승계 계획을 검토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보상위원회는 성과연계보상 결과, 회사의 인센티브 기반 핵심 성과지표 및 목표 등을 검토한다.

세무당국과 투명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세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경제적 실체가 충분하지 않은 인위적 조세약정을 반대하고 있다.

#### 마. GlaxoSmithKline<sup>11</sup>

'21년에는 전체 직원의 99.4%, 계약직 근로자의 92.9%가 위험과 규정준수, 다양성 및 환경 보호정책 수립에 중점을 둔 교육을 이수하였고 책임자들은 뇌물 및 부패방지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아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며 이해상충을 인식, 보고 및 관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여 직원이 정책을 위반할 시 조치를 취하고 2021년에는 징계 자료를 보고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이전 해에 시작된 사례까지 확대하였다.



임상연구를 위한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2,776개의 임상연구 보고서와 6,239개의 결과 요약본을 출판하였으며 [www.vivli.org](http://www.vivli.org) 및 [www.clinicalstudydatarequest.com](http://www.clinicalstudydatarequest.com)을 통해 데이터 공유를 위한 2,550건의 연구를 나열하였다.

#### 4. 국내 ESG 평가 기준 및 모델

국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등 ESG 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평가가 가능한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일부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총 7단계(S~D)의 등급을 매긴다. 서스틴베스트의 경우, 자사 ESG value™ 모델을 사용하여 상장사와 그 외 기업에 대해 7단계(AA~E)의 등급을 매기며, 연 2회 상장사의 ESG 종합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국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의 평가기관에서는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해 국내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내에서의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평가기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기관의 기준 및 격차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21년 12월 국내 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ESG 표준 지표를 제시했고, '22년 2월 공공기관의 ESG 통합공시 기준을 개정했다. 국내 ESG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ESG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기준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실행가능성과 이행효율성에 착안하여 "계획(Plan)-이행(Do)-평가(Evaluate)"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기업의 전략적 방향에 맞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12</sup>

[표 4] 국내 ESG 평가기관 모델

평가기관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항목(점수체계)
	KCGS 독자 ESG 평가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900여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평가 진행</li> <li>· 기본 평가의 경우 가점방식을 적용하며, 심화 평가는 부정적 ESG 이슈에 대한 감점방식을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개 대분류, 265개 평가항목 구성</li> <li>· 7개 등급으로 분류 (S~D)</li> </ul>
	ESG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계 2,500개 기업(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 사회, 환경적 성과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개 등급으로 분류 (AA~E)</li> </ul>

##### 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평가<sup>13</sup>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3년 지배구조 평가(G)로 시작하여, 2011년부터 환경(E) 및 사회(S) 부분을 추가하여 ESG 통합평가를 수행하였다. 매년 900여개 상장회사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8년 부터는 비상장 주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별도로 평가하였다. 평가문항은 총

18개 대분류, 265개 핵심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평가는 기업 특성별로 분류 후 가점방식을, 심화평가는 부정적 ESG 이슈에 대한 감점방식을 적용하고, 상세 평가문항은 평가 대상 기업만 확인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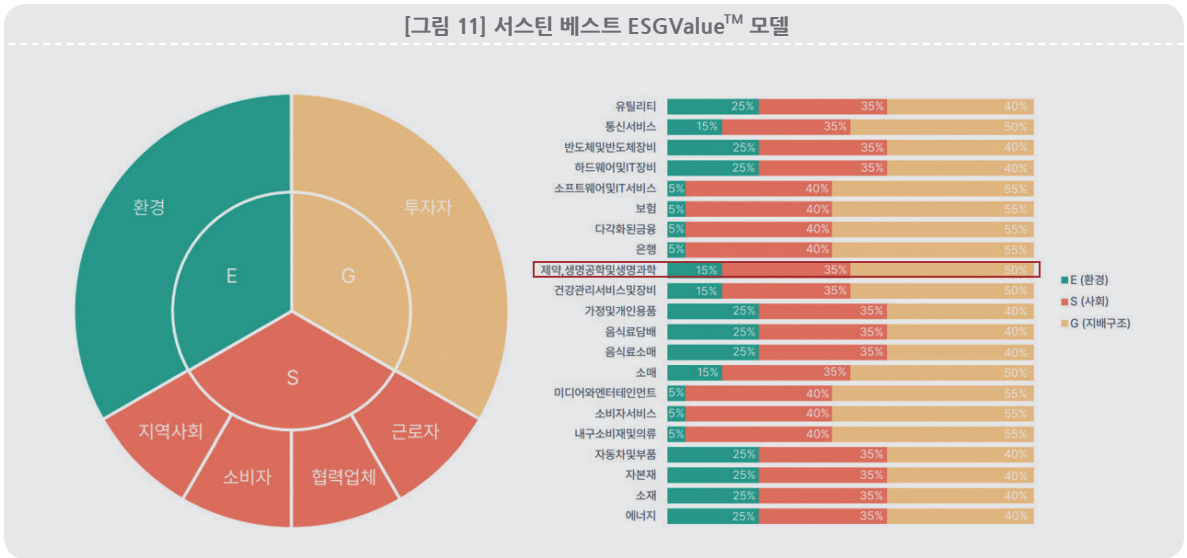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해 국내 ESG 모범규준을 '21년 8월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기업들이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 시리즈를 제공하고있다.

## 나. 서스틴베스트 평가<sup>14</sup>

서스틴베스트는 2007년 자체 개발한 ESGValue™ 모델을 활용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관리 수준을 평가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체계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G) 영역에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회구조(S) 영역에서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관점에서의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E) 영역에서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평가에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①각 지표가 반영하는 핵심 ESG 이슈에 대한 산업별 리스크 노출도 수준과 ②핵심 ESG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③기업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표 간 상대적 중요성(materiality)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한다. 이때, 평가 지표와 가중치는 매년 데이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평가 체계의 경우,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업들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은 총 7개로 나뉜다.

[그림 11] 서스틴 베스트 ESGValue™ 모델



## 5. 국내 주요 기업의 ESG 대응현황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는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이다. 약업신문과 한국바이오 협회가 함께 바이오제약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ESG 경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79.4%가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고, 90.2%는 ESG 경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SG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 41.3%(45건), 환경 35.8%(39건), 지배구조 22.9%(25건)로 확인됐다. ‘ESG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오제약 회사’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이 각각 24건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한미약품(19건), SK(케미컬, 바이오사이언스, 14건), 동아제약(12건), 셀트리온(11건) 순으로 응답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ESG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sup>15</sup> 아래 기업 사례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KCGS) 평가에 따른 등급 기준으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가. 환경경영 우수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환경 A등급)는 생산량을 기반으로 하는 온실가스 원단위 감축목표를 '25년까지 '20년 대비 37% 절감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3.4% 감축하였다.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구축 및 인증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와 금융감독원의 기후환경리스크

크 관리모형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sup>16</sup>

종근당(환경 A등급)은 제약업계 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등을 인증받았으며 사업장 내에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인 FEMS(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였다.<sup>17</sup>

한미약품(환경 B\*등급)은 '19년 업계 최초로 환경관련 위원회인 'hEHS위원회'를 신설하고 EHS경영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각 사업장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및 공정안전관리-PSM(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을 통해 관련 목표 달성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다.<sup>18</sup>

#### 나. 사회경영 우수사례

동아쏘시오그룹(사회 A\*등급)은 저소득층 저신장 아동에게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20년에는 100명의 아동에게 약 6.3억 원에 달하는 주사제를 지원하였다. 지역인재 채용, 지역 내 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 후원, 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등의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였으며 '21년에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스스로 과제를 도출하고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였다.<sup>19</sup>

한미약품(사회 A\*등급)은 남녀평등고용법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성희롱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인권경영 정책반영 및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실제로 20년 국내 500대 기업 양성평등지수 조사 발표에서 바이오제약 업계 유일 양성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sup>18</sup>

#### 다. 지배구조 우수사례

동아쏘시오그룹(지배구조 A등급)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목표로 2019년 3월 이사회 결의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sup>19</sup>

유한양행(지배구조 B\*등급)은 창업주의 뜻에 따라 그 일가를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였



으며,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은 사회의 소유라는 경영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기업 주의 독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사 내부에서 성장해온 인재에게 경영을 맡기는 선진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전문경영자의 책임경영과 합리적 경영을 수행하고 있다.<sup>20</sup>

## 맺음말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최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이행을 위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추진 등의 공시 강화가 바이오제약기업의 ESG 추진 동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의 재무 중심의 정량적 지표 기반 투자에서 확대되어 글로벌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의사 결정 시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비재무적 가치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기업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ESG경영은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글로벌 대표 ESG 평가기관인 MSCI 평가 모델의 경우,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요소 중 G(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지배구조를 가장 기본시한다.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책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바이오제약 기업은 ESG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새로운 ‘G(거버넌스)’ 지수가 추가되고 여성 비율 및 인종 다양성까지 반영하고 있다. 화이자사는 이사회 여성비율을 33%, 다 인종 비율을 2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ESG 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환경)나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코로나 19 등으로 친환경 이슈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향후 국내기업들이 집중해야 할 영역으로 보여진다.

최근 국내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 수립,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 ESG 위원회 신설 등 많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경계해야 하며 ESG Washing 또는 Green Washing에 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ESG Washing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는 기업과 외부 정보간의 비대칭성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무성과와 마찬가지로 ESG 성과를 공개하는 표준을 정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ESG의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개 및 검증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SG는 처음에 ‘투자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언급되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과 실현을 통한 경영체계 정립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을 고려한 기업활동, 사회적 책임, 준법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ESG를 도입한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며, 최근 국내외 경영 트렌드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전체 밸류체인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공급망 ESG’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들은 안전관리와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B2B 또는 OEM 거래를 하는 형태의 국내 제조업의 경우, ESG 성과지표 관리를 ISO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각 인증의 요구사항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화 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CMO, CDMO 사업을 통한 원료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면 ESG 경영추진과 공급망 관리지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SG는 갑자기 등장한 일시적인 트렌드 및 개념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정책 이슈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거나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한 '50년 Net Zero 계획'을 시행중이며, 이에 대한 압력은 향후 수십년 간 계속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양한 사회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흔히 ESG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ESG 경영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기업으로 비춰지기가 쉽다. 그러나, 진정한 ESG 경영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홍보성 활동에만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경영 체계 전반에서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material) 활동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ESG 경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한국거래소 ESG 포털, ESG 소개 - ESG는 무엇인가요?
2. JP Morgan Chase & Co. -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Report
3. KONETIC, ESG Risk : 평가 기준 혼선과 기업의 대응 방안 고찰, 2021.05
4. MSCI, MSCI ESG Ratings Methodology, 2022.04
5. S&P Dow Jones Indices, Discover Material insights with S&P DJI ESG Data, 2020. 01
6. Abbvie, 2020 Environmental, Social&Governance report, 2021
7. Novartis, Novarti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ategy, 2021
8. Novartis, Novartis in Society integrated report 2021, 2021
9. Pfizer,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Report, 2022
10. Takeda, 2021 annual integrated report, 2021
11. GSK. ESG performance report 2021, 2022
12. 이연우,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의 쟁점분석과 적용포인트, Vol. 266, 2022. 02
13.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안내, 2022
14. 서스틴베스트 기업 ESG 분석 보고서, 2021.12
15. 약업신문, “유한양행·삼바가 선두” 제약·바이오기업에 부는 ‘ESG’ 바람, 2022.03
16. 삼성바이오로직스, Sustainability report 2021, 2021
17. 종근당, <http://www.ckdpharm.com>
18. 한미약품, CSR report, 2021
19. 동아쏘시오그룹, Integrated report 2020, 2021
20. 유한양행, Yuhan annual report 2020-2021, 2021



May 2022. Issue 38

#### Writer

**박봉현**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지운**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소, 연구원

#### Reviewer

**강진영** 삼일회계법인, 컨설턴트

#### BIO ECONOMY REPORT

발행 : 2022년 5월 | 발행인 : 고한승 |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소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http://www.koreabio.or.kr)  
\* 관련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소 e-mail : [Koreabio1@koreabio.org](mailto:Koreabio1@koreabio.org)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KOREA BIO-ECONOMY RESEARCH CENTER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9 772508 682002

ISSN 2508-6820

38